



인생(人生)의 세 가지 싸움

인생의 여정에 있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과 양식을 제공해주는 따뜻한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인한 적으로 경쟁자이다. 과학과 기술과 기계는 인간이 자연과 싸우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로 도구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항상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한낱 힘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둘째는 인간과의 싸움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생존경쟁에서부터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계에는 많은 싸움이 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원치 않지만 생존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세상에 패배처럼 분하고 괴로운 것이 없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전락하는 것이요 노예가 되는 것이다. 패배는 자멸을 의미한다. 월남을 보라! 월남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무장이 없는 곳에 평화는 없고 힘이 없는 곳에 자유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의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 민족은 약 7,500년의 외침을 당

하고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이다. 물론 고조선 시대에 한나라, 고려시대에는 몽고, 일제 강점기 등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지만 기어코 주권을 되찾아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서있다. 아직 남북으로 갈려 있는 것이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그것이 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지켜낼 만한 자주국방의 힘은 꼭 있어야 한다.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의 싸움터다.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자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 '너그러운 나와 응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의 나' '참된 나와 거짓된 나' 이러한 두 가지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이며, 영광인 동시에 고뇌와 비극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나 나(我)라는 실체를 모르고 막연히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百戰百敗)할 수밖에 없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잠시 이긴 것을 이겼다고 착각할 뿐이다. 다시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 패전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악(惡)이 나온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자존심(自尊心)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종교 분쟁에 의한 전쟁이 90% 이상이다. 자신이 믿는 신과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간의 생명은 물론 가족까지도 가장 위대하다는 신의 이름으로 도륙을 내는 것이다. 자신들의 신만이 정당하다는 집단적인 이기주의요, 그 근간은 바로 자존심이다.

그러므로 자존심인 나라는 주체의식의 실체는 바로 죽음을 부르는 영이다. 결국 자존심이 만 악(惡)의 악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존심을 죽이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진아(眞我)인 양심(良心)의 영(靈)이 주관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가아(假我)인 욕심(慾心)의 영(靈)인 사망(死亡)의 신인 마귀에게 점령당하면서 나라는 주체의식은 마귀의 영이 되었으며 마귀가 우주 권세를 쥐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주 권세를 쥔 마귀가 천제지변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무더기로 죽이고 인간을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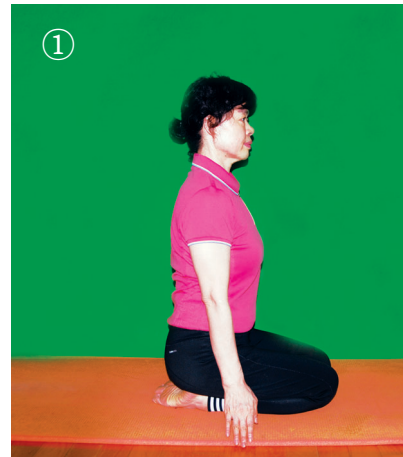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을 죽이고 승리하여 다시 우주 권세를 회복한다면 천제지변도, 전쟁도, 늙고, 병들고, 죽는 일도 없이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오게 된다.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나라는 주체의식인 자존심과의 진검승부(眞檢勝負)를 시작하자. 그리하여 자존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크기승자(克己勝者)는 천하승(天下勝)이다.* 편집부

수녀의 요가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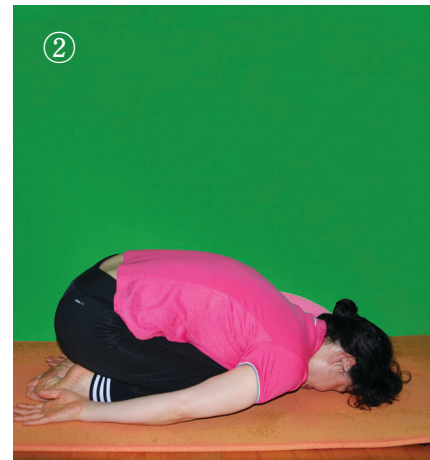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마음속에 잡념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한 단계 내리고 감정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넓어지고 편안해진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편안하게 먹고, 찬 음식을 피하고, 요가를 천천히 꾸준히 하면서 소유하려는 마음이 적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척추·등·목 피로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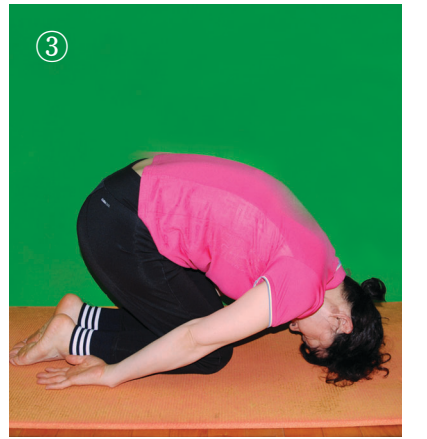
효능: 상체를 앞으로 숙여 몸을 동그렇게 만드는 동작이다. 서서 일하는 직장인의 허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허리디스크를 예방한다.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며, 머리가 아플 때도 효과적이다.

동작①: 무릎을 꿇고 금강좌로 앉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바로 세운다.

동작②: 숨을 내쉬며 상체를 숙이고 손등은 바닥에 대고 머리를 앞으로 숙여 바닥에 붙인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한다.



동작③: 머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10초 동안 유지한다.



동작④: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백회혈이 바닥에 닿도록 유지하며 복식호흡을 한다. 10초 유지. 동작 ①~④번까지 이어서 3회 정도 반복한다.*

도덕경해설

도덕경 22장 해설

도(道) 속에서 살면서도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도인(無道人)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근본과 도리를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타인과 만물에게 해가 되고 고통을 끼친다. 무도인의 마음과 행동거지를 그려본다면, 목을 곧추 세운 자존심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감정과 체위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욕심으로 팍팍 무쳐진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떤 형상일까? 그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

그렇다면 온전한 도를 품은 자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어떠할까? 자못 궁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장은 중국의 옛 속담에서 전해지듯 '굽어지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 곡則全 枉則直(곡즉전 왕즉직)'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온전한 도인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곡則全 枉則直(곡즉전 왕즉직): 굽히는 것이 곧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며, 굽히는 것이 곧 올곧은 것이 되고

사람 속에는 누구나 자존심과 감정과 욕심이 있다. 해서 머리를 곧추 세우고 거만한 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며 싫어한다. 정도가 심해지면 상태에 게 불이익을 끼치고 해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도인은 스스로 머리를 굽힘으로 적을 만들지 않아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窪則盈 敝則新(와즉영 폐즉신): 움푹 패인 것은 곧 채워지게 되며, 낡은 것은 곧 새롭게 될 수 있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패인 것은 무엇으로든지 채워지게 되고, 낡은 것이 무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되듯이 자신은

曲則全 枉則直

곡즉전 왕즉직

비움으로써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少則得 多則惑(소즉득 다즉혹): 적게 가지려면 곧 더 많이 얻게 되며, 많이 가지면 오히려 미혹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적게 하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다.

是以聖人抱一 爲天下式(시이성인포일 위천하식): 그래서 성인(聖人)의 원리를 품음으로써 천하를 대하는 근본으로 여긴다

하나의 원리는 한 쪽이 많으면 한 쪽이 적어지고, 한 쪽이 커지면 다른 한 쪽이 작아지는 것이니, 하나가 이익을 보면 하나가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이런 이치를 아는 성인의 삶은 자신을 위하여 더 가지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다.

不自見 故明(부자견 호명):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음으로 더욱 밝게 되며

하나의 원리 속에는 나가 너고, 너가 나이므로 공평무사함이 철칙이다. 특별히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不自是 故彰(부자시 고창):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음으로 더 더욱 밝으며

매사가 무사공평하게 생각하고 행함으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그 옳고 밝음이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不自伐 故有功(부자벌 고유공): 자신을 자랑하지 않음으로 공적이 있게 되며

모두가 다 하나인데 무엇을 자랑하고 또 드러낼 것이 어디 있겠는가!

不自矜 故長(부자금 고장): 스스로 자랑하지 않음으로 장구하게 되는 것이다

자만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고, 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며 협조를 구하지 못해 장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오래 보존하는 것은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부유부쟁 고천하막능여지쟁): 대저 다투지 않으려 하기에 세상에서 능히 다들만 한 것이 없다

스스로 낮아지고 이익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누구와 다를 것인가.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고지소위곡즉전자 기허언재):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굽히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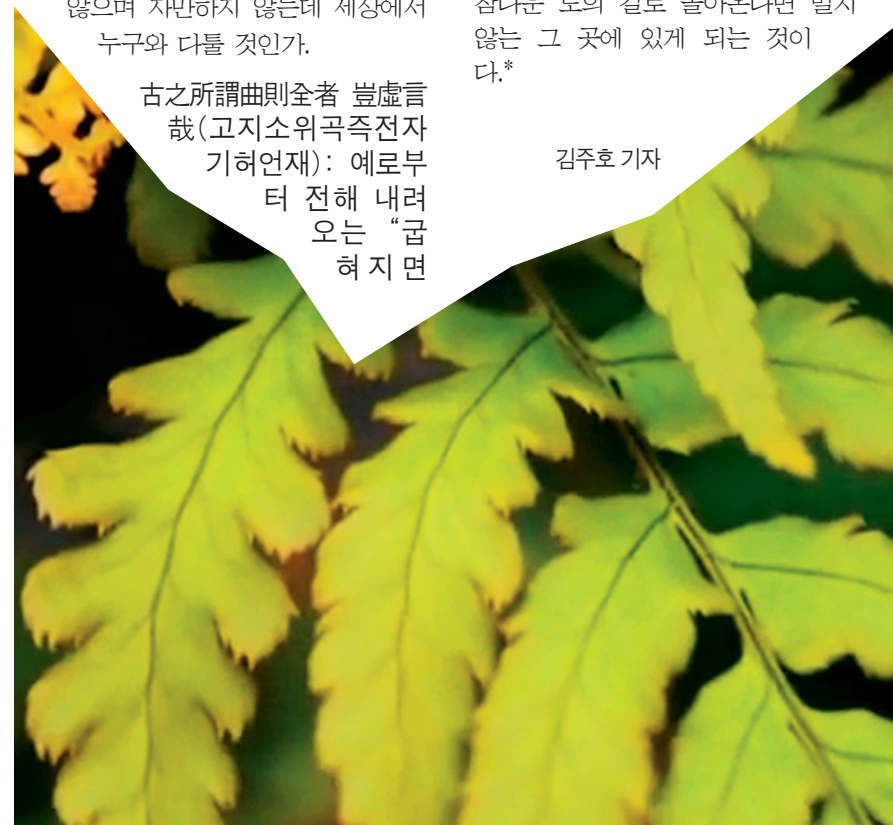
온전하게 보존된다"는 말씀이 어찌 빈 말일 수가 있겠는가!

옛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굽히면 무위자연하고 열답허무하며 불로장생한다는 도의 세계는 결코 허튼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誠全而歸之(성전이기귀지): 진실로 온전한 것은 道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사람이 추구하는 온전한 진리와 행복은 무도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다. 하지만 진실로 정성을 다하여 참다운 도의 길로 돌아온다면 말지 않는 그 곳에 있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허만옥 승사 칼럼

진짜 삼보(三寶)는 미륵불이다

불교 용어에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라는 말이 있다. 즉 탐(貪)은 욕심, 진(瞋)은 함부로 성을 내는 것, 치(癡)는 어리석음의 뜻이다. 즉 욕심을 부리거나, 성을 내거나,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 몸에 독(毒)이 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완전하게 성불(成佛)하게 되면 육신통(六神通)을 얻는다고 한다. 원하는 대로 몸이 분신(分身)이 되어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



미륵불이 진짜 삼보라고 말했다. 왜 미륵불이 삼보라고 했을까? 삼보(三寶)라는 글자 속에 미륵불(力)인 천이통(天耳通), 타인의 마음을 투시하는 타심통(他心通), 타인의 전생(前世)의 모습까지 투시 가능한 속명통(宿命通), 성(性)을 초월한 능력인 누진통(漏盡通)이 그것이다. 육신통을 얻은 존재는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신(神)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어 불로불사(不老不死) 하게 된다.

현재까지 육신통을 얻은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석가모니 선생도 육신통을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열반경에 이르기를 "나는 아직 성불하지 못했다. 나를 보고 성불했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는 진짜 삼보가 아니라 가짜 삼보라고 말하며,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31)652-6438
이죽제단 : (031)672-6786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51)91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송주제단 : 010-9980-5805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울산제단 : (052)291-1849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33-7866
포항제단 : (054)292-5455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광주제단 : (062)524-4555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금마제단 : (063)853-6673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Philadelphia : (215)722-2902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